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심준섭** · 김지수***

논문 요약

갈등 당사자들은 각자 인지적 스키마로서 갈등 프레임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정책갈등은 프레임들간의 갈등으로 축약된다. 따라서 갈등프레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공공갈등 관리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프레임 연구 논문들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주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프레임, 프레임링, 프레임 분석, 공공갈등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B00744).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I. 문제제기

공공정책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Schön & Rein(1994)은 정책갈등을 프레임들 간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갈등 연구자들의 오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정책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대표적으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론에 근거한 접근법은 개인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손실과 이익의 적절한 배분 기제를 찾아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갈등을 유발하는 객관적인 조건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면 갈등은 해결될 것이며,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손실이 귀착되는가를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갈등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많은 공공갈등에서 합리적 선택에 기초한 갈등관리 방안들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갈등이 객관적인 이해관계 충돌의 산물이 아니라 상황과 이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의 구성물이라는 점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Hammond, 1996; 심준섭, 2011). 개인마다 현상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의미부여(sense-making) 방식에 따라 동일한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규정될 수도, 또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체계의 다양성은 개인 간 인식차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이 환경, 보건 및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개인 간·집단 간 인식차가 커질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왜 갈등 당사자들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일까? 어떻게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체계를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오랜 고민은 ‘프레임(fram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가 직면한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틀인 프레임(frame)과 프레임이 형성되는 과정인 프레임링(framing), 그리고 상호작용이나 경험을 통해 기존의 프레임을 수정해서 새로운 해석 틀을 만드는 과정인 리프레이밍(reframing)의 개념은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기제를 마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정교한 진단과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를 위한 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사회학자인 Goffman(1974)은 블랙박스로 여겨지던 개인의 인식 프레임을 본격적인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프레임 분석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프레임을 실제의 표상과 인식을 인도하는 기본적인 인지적 구조(cognitive structure)로 정의하고, 개인마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와 주관적인 간여(subjective involvement)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Goffman, 1974). 같은 시기에 프레임 연구의 본격적인 장을 마련한 또 다른 사람들은 인지심

리학자인 Kahneman과 Tversky였다(Tversky & Kahneman, 1981, 1980, 1979). 이들은 문제가 프레임 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기대이론(prospect theory)을 정립하고 휴리스틱스(heuristics)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을 시작으로 인지심리학, 사회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프레임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프레임 관련 논문들이 저술되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언론학이나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프레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의 모두에서 프레임은 행정학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주제였다. 다행히 최근 들어 행정학자들 간에 공공갈등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프레임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향후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본 연구는 목적은 현재까지의 국내의 프레임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갈등연구에 있어서 프레임 접근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학술DB인 DBPIA와 KISS에서 1900년 1월(최초 검색가능 시기)~2011년 5월까지 사회과학 분야(경영, 경제, 교육, 사회, 법학, 행정)의 237건의 프레임 관련 논문 중에서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31개 논문의 프레임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주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II. 프레임의 이해를 위한 문헌검토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경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프레임 분석의 핵심 개념들인 프레임(frame), 프레임링(framing), 리프레이밍(reframing),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의 개념과 프레임 연구의 주요 분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갈등 연구에서의 프레임, 프레임링, 리프레이밍 그리고 프레임 분석

행정학 분야에서 프레임(frame)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다. 최근 들어 프레임과 프레임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프레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Steinberg, 1999). 사전적 의미의 프레임은 ‘틀, 열개, 뼈대’로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레임은 ‘그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액자처럼 전체 그림이 전시될 수 있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

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연구자들 간에 공통된 정의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개념적 혼란으로 인해 실제로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1> 프레임과 프레임의 다양한 개념 정의

분야	학자	개념
사회학	Goffman (1974)	사건들을 지배하는 조직화 원칙에 부합하며, (또한) 그 사건들에 대한 주관적 간여 (subjective involvement) 속에서 상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며, 프레임은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의미 - 프레임은 개인들의 삶의 공간과 세계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위치시키고, 인식하고, 확인하고, 이름 붙이는데 이용하는 해석의 스키마(schemata of interpretation)
인지심리학	Tversky & Kahneman (1981, 1979)	- 프레임은 문제나 상황이 제기되는 방식을 나타냄
언론·미디어	Gitlin (1980)	- 프레임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발생되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암묵적 이론들로 구성된 선택, 강조, 표상의 원칙들
	Entman (1993)	- 프레임은 특정한 문제정의, 인과적 설명, 도덕적 평가 그리고(또는) 해결에 대한 제언을 증진하기 위해 인식된 실제의 일부분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커뮤니케이션 텍스트 내에서 부각되도록 만드는 것
	Gamson & Modigliani (1989)	- 해석적 패키지(interpretative package)로서의 프레임 - 프레임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와 무엇이 이슈인가를 제시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조직화 아이디어 - 개인들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의 역사,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 성향들을 끌어들이며, 예견적인 스키마(anticipatory schema)를 가지고 이슈에 접근함
	Vreece(2005)	- 어떤 주제의 상이한 측면들의 현저함에 대한 강조
	Gamson(1992) Gamson et al.(1992)	- 프레임은 다양한 상징체계들에 대해 의미와 일관성을 부여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적 조직화 원칙 - 프레임은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스키마가 인지심리학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함
보건학	Banks et al.(1995)	- 프레임은 메시지가 구성되는 방식
경영학	Fairhurst & Sarr(1996)	- 프레임은 의미의 영역 내에서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를 나타내며, 언어 사고 사전적사고(forethought)로 구성됨
정치학	Iyengar (1996, 1990)	- (1996) 프레임은 (문제나 상황의) 제시가 판단과 선택에 미치는 효과 - (1990) 프레임은 선택이나 의사결정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이용하는 특정한 개념과 용어들
	Nelson et al.(1997)	- 프레임은 커뮤니케이션 소스가 자신의 청중들에 대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슈를 구성하고 정의하는 과정
	Barker(2005)	- 프레임은 메시지가 제시되는 방식

<계속>

분야	학자	개념
정치학	Chong & Druckman (2007)	- 프레임은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한 특정한 개념화를 개발하거나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재형성하는 과정
갈등 연구	Gray (2004, 2003)	- 프레임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는가를 묘사함 - 프레임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갈등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뿐만 아니라 공유된 의무부여를 포착할 수 있음
	Kaufman et al.(2003)	- 프레임은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지적 지름길 (cognitive shortcut) - 프레임은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객관적인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도구
	Brummans et al.(2008)	- 프레임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일정한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경험을 조직화함
	Gray (2004, 2003)	- 프레임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는가를 묘사함 - 프레임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갈등 상황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뿐만 아니라 공유된 의무부여를 포착할 수 있음
	Kaufman et al.(2003)	- 프레임은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지적 지름길 (cognitive shortcut) - 프레임은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객관적인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도구
	Brummans et al.(2008)	- 프레임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일정한 방식으로 정의함으로써 경험을 조직화함
	Lewicki et al.(2003)	- 프레임은 세상의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을 구성하고 표상하는 과정
	Pinkley & Northcraft (1994)	- 갈등 프레임은 당사자들이 갈등상황을 바라보는 렌즈
사회 운동	Benford & Snow (2000, 1988)	- (2000) (Goffman(1974)의 정의를 따라) 프레임은 사건과 상황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따라서 경험을 조직화하는데 기능하고 행동을 인도하는 역할을 함 - (1988) 프레임은 주어진 토픽에 대해 행동을 자극하고, 촉진하고, 동기부여하게 만드는 통일된 개념에 의해 함께 묶여진 아이디어 요소들의 집합

이처럼 프레임 개념의 상당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프레임 개념의 공통 전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이슈나 상황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주관적 관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프레임은 복합적인 가치나 고려사항들을 통합하는 인식적 구조(integrating structure)이며 일관된 사고의 흐름이다. 둘째, 프레임은 확인가능한 개념적, 언어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갈등 당사자의 텍스트 속에서 일정한 개념적, 언어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연구자에 의해 확인 가능해야 한다.¹⁾ 따라서 프레임은 타당도를 지녀야 하며(즉,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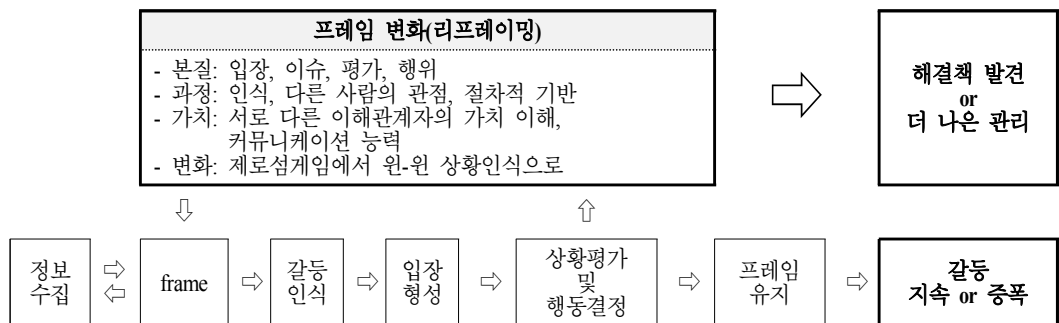
1) 전통적인 내용분석에서 텍스트(text)는 개방형 설문 응답, 인터뷰 기록, 출판물의 일부분, 광고, Web 페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식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상상의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Cappella & Jamieson, 1997). 셋째, 한번 형성된 프레임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며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Chong & Druckman, 2007). 일정 시점에서의 프레임이 이후 시점에서의 프레임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에 대한 논의는 특정 시점을 전제로 한다. 리프레이밍은 프레임 진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프레임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각 프레임들은 배타적이며, 포괄적인 속성을 지녀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일반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갈등 당사자들은 갈등 상황에 특정한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s)을 가지고 있다(Dewulf et al., 2009; Golec & Federico, 2004; Pinkley & Northcraft, 1994). 갈등 프레임은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특히 갈등 프레임은 1) 어떤 상황이 갈등상황이며, 2) 언제,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또한 어떻게 끝나야 하며, 3) 갈등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Dewulf et al., 2009; Golec & Federico, 2004; Lewicki et al., 2003).

프레임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인식의 틀이라면, 프레이밍(framing)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프레임 창출(the creation of frames)’ 과정을 나타낸다. 갈등 당사자들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름대로 구성하고, 해석하고, 정의함으로써 관점과 생각을 조직화한다. 한편, 프레임의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리프레이밍(reframing)이라고 하며, 리프레이밍은 갈등의 역동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의 변화는 갈등을 해소하거나 또는 반대로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갈등 상황에서 프레임의 역할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갈등상황에서의 프레임의 역할



* 자료: Kaufman et al.(2003)

이지, 신문기사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Gamson & Modigliani, 1989).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은 개인 또는 집단의 인식 프레임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은 사회학자인 Goffman(1974)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도 합의된 개념이나 방법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분석은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 내용분석 기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현재까지 갈등 연구만을 위한 고유한 독립적인 프레임 분석 방법론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갈등 연구자들은 담론분석을 비롯한 기존의 다양한 프레임 분석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 연구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방법론에 의존한 프레임 분석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레임 분석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Kaufman et al., 2003). 첫째, 논쟁의 이슈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고 새롭게 함으로서 더 생산적인 정보교환을 유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논의의 큰 틀을 넓히며,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행위나 해결책을 탐색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생산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주관적 관점을 정의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프레임을 가진 경우에도 그것을 더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교환(trade-off)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사자 간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또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차이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줄이고, 어떤 것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인지를 파악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레임 분석은 단순히 갈등당사자의 인식을 조사 및 기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Kaufman et al., 2003).

2. 갈등 프레임 연구의 학문적 기반

갈등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 기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프레임 연구의 학문적 기반은 크게 인지심리학적 접근, 사회 운동(social movement) 연구 접근, 언론매체 연구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세 분야의 갈등 프레임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인식론적, 방법론적 토대 위에서 상이한 수준과 차원의 갈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갈등해결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어느 하나의 접근법에 기초하기 보다는 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갈등 연구자들을 중심으로(Dewulf et al., 2009; Lewicki et al., 2003) 독자적인 프레임 연구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표 2>는 갈등 프레임 연구의 주요 학문적 기반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학문 분야별 프레임 연구

구분	인지심리학적 연구	사회운동 연구	매체연구	갈등연구
학문 배경	인지심리학	사회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여론연구	학제적
주요 연구자	·Tversky&Kahneman (1980, 1981) ·Tannen(1993)	·Snow et al.(1986) ·Snow & Benford, (1988) ·Gamson(1992) ·Carroll & Ratner (1996)	·Iyengar(1991) ·Gitlin(1980) ·Gamson(1988) ·Entman(1993) ·Chong & Druckman(2007) ·Barker(2005)	·Gray(2004, 2003) ·Dewulf et al. (2009) ·Kaufman et al. (2003)
프레임의 원천	·문제의 제시 방식 ·인지적 정향: 행위에 대한 기대의 산출	·인지적 정향 (해석의 틀)	·뉴스(메시지)의 구성 방식 ·정치적 메시지나 커뮤니케이션의 구성방식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인지적 정향 (해석의 틀)
프레임의 효과	개인수준	개인, 집단, 사회수준	개인, 집단, 사회수준	개인, 집단
주요 프레임 유형	·긍정적 프레임 (이익) ·부정적 프레임 (손실)	·집단행동 프레임 ·진단적 프레임 ·예측적 프레임 ·동기적 프레임	·일화적 프레임 & 주제적 프레임 ·이슈한정 프레임 & 일반프레임	·갈등 프레임: 일반프레임, 이슈한정 프레임
초점	·프레임이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개인의 의미부여	·집단적 프레임 공유 과정과 동원화 ·조직간 연대	·뉴스 프레임, 정치적 메시지나 커뮤니케이션의 현실 구성과정 ·뉴스 프레임이 생산하는 의미 ·의식적인 프레임의 효과: 여론형성	·갈등 프레임의 확인을 통한 갈등관리 ·리프레임의 확인
주요 개념	·긍정적/부정적프레임 ·인지적 프레임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	·문화적 현상 ·사회적 구성물 ·동의된 이해방식 ·프레임 정렬 ·마스터프레임 (master frames)	·사회적, 정치적 현실 구성 ·의식적 담론 구성 및 조직 ·의도적 프레임 선택 ·경쟁적 프레임 ·매체 프레임의 효과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 ·리프레임
분석 단위	개인	개인, 집단, 전체 사회	개인, 집단, 전체 사회	개인, 집단
분석 방법론	양적(실험)	질적	양적, 질적	질적

* 자료: 심준섭·김지수(2010)를 수정 보완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Tversky & Kahneman(1981, 1980)의 연구를 중심으로 문제나 선택 상황이 제시되는 방식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프레임에 따라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을

따르는 이후의 프레임 연구들은 문제 상황이 제시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적 접근 보다는 보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인식체계나 인식의 스키마를 나타내기 위해 프레임 개념을 차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실험을 통한 프레임링 효과에 대한 양적 측정이 주된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갈등 프레임 연구자들은 당사자가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식의 틀로서 갈등 프레임을 정의하면서 개인간 갈등에서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을 분석한다.

사회운동연구는 인지심리학의 프레임 개념을 집단 수준으로 확장한 집단행동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Snow et al., 1986; Taylor, 2000). 이 접근법은 인식의 스키마라는 인지심리학적 프레임 개념을 유지하지만, 어떻게 개인과 집단이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들을 프레임링 하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접근법은 어떻게 개인들 간에 프레임이 공유되고, 그 결과 집단적 동원(mobilization)으로 이어지는가를 연구한다. 특히 사회운동조직이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을 통해 전략적으로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따라서 주로 집단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며, 사례 분석 및 담론분석 등 질적 분석 방법이 이용된다.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갈등 프레임 연구자들은 집단적 차원에서 갈등 프레임이 형성되고, 프레임이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임 연구는 뉴스를 보도하는 제작자의 의도에 해당되는 뉴스 프레임과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받는 여론의 프레임을 주로 연구한다(Gitlin, 1980; Gamson, 1988, 1992; Entman, 1993; Gamson & Lasch, 1983). 따라서 개인보다는 집단적·사회적 수준의 프레임링 효과에 관심이 있으며, 분석 방법론은 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질적, 양적 내용 분석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따라, 최근에는 여론 분야에서 프레임 연구가(Chong & Druckman, 2007; Barker, 2005; Jacoby, 2000; Iyengar, 1996, 1990; Nelson & Oxley, 1999) 확대되고 있다. 이 분야는 주로 정치적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및 메시지의 내용이 현실을 어떻게 프레임링 하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정치인이나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이 시민의 프레임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갈등 프레임 연구자들은 주로 정책 갈등을 사례로 뉴스나 정치인들의 상충되는 메시지들을 분석하고, 또한 이러한 상충되는 프레임링이 대중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 연구 분야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학자들의 학제적 접근 속에서 협상 당사자나 갈등 당사자의 인식 프레임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Dewulf et al., 2009; Gray, 2004, 2003; Kaufman et al., 2003). 이 분야 연구자들은 개인 또는 집단 수준의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을 보다 세분화하여 갈등 프레임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갈등 프레임별 특성과 프

레이미의 변화가 갈등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 분야는 사례분석이나 담론분석과 같은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갈등 프레임을 확인한다.

Ⅲ. 문헌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1.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범위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 갈등연구 분야에서의 프레임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성 있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등 연구 분야의 학술논문 중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프레임 관련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나 등재후보지 게재논문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논문 탐색을 위한 검색은 학술 DB인 DBPIA와 KISS를 이용했으며, 상세 검색에서 ‘경영경제, 교육, 사회, 법학행정’ 주제를 선택한 뒤, 2011년 6월 3일을 검색 기준일로 1900년 1월(검색이 가능한 최초시기)부터 현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삼았다. 검색어는 ‘프레임, 프레임링, 틀짓기’라는 표현이 제목 및 키워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으며, 영어 표현인 ‘frame’의 경우는 연구 분석의 틀을 의미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교차 검색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논문에서 한국어인 프레임과 동시 검색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검색어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서 검색된 총 237편의 프레임 논문 중에서 갈등 사례를 연구한 18개 학술지의 31편 논문이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인의 연구자가 각자 논문을 검색한 후, 논의를 통해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조정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에 포함된 분석대상 논문의 발생연도와 학문분야별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분석대상

발행연도	빈도	비율(%)	학문분야	빈도	비율(%)
2009-2010년	9	29.1	행정/정책	10	32.3
2007-2008년	6	19.3	언론	17	54.8
2005-2006년	6	19.4	기타 사회학	4	12.9
2003-2004년	5	16.1	합계	31	100.0
2002-2001년 ²⁾	5	16.1			
합계	31	100.0			

2) 2000년 이전의 DB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이 발견되지 않음

2. 분류기준

본 연구는 31개 분석대상 논문들을 연구 분야, 대상 사례, 분석 대상, 프레임 확인 방법, 연구방법, 시기별 분석 여부, 리프레이밍 분석 여부 등 8가지 변수에 따라 분류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변수들을 범주별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코딩 기준표(coding scheme)를 작성하였다. <표 4>는 본 연구에 이용된 코딩 기준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코딩 기준표

변수	범주별 분류 기준
연구 분야	1) 갈등연구 분야 2) 인지심리학 분야 3) 사회운동 분야 4) 언론매체 분야 5) 기타 분야
대상 사례	1) 님비 시설 입지로 인한 갈등 2) 국가 개발 사업 및 그로 인한 환경갈등 3) 법률안 및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의 통과 4) 기타(예: 환경, 통일, 대외정책, 노동)
분석 대상	1) 해당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 집단 1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경우 (예: 해당지역 주민, 해당 지자체 공무원, 주무부처 공무원 등) 2) 신문사 3) 둘 이상의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프레임 확인방법	1) 연역적 2) 귀납적: 동일한 입장의 집단을 기준으로 3) 귀납적: 이슈별로 구분하는 방식
분석 방법	1) 양적 내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2)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3)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 4) 설문의 방법
자료수집	1)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해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2) 신문, 보도자료, 문헌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시기별 분석 여부	1) ○ 2) ×
리프레이밍 분석 여부	1) ○ 2) ×

첫째, 연구 분야는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것처럼,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1) 갈등연구 분야, 2) 인지심리학 분야, 3) 사회운동 분야, 4) 언론 매체 분야, 5)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다.

둘째, 대상 사례는 개별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를 토대로 귀납적으로 정리한 뒤,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1) 님비 시설 입지로 인한 갈등 2) 국가적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갈등, 3) 법률안이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의 결정, 4) 기타 분야(예: 통일, 대외정책, 노동)로 분류되었

다. 기타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도가 매우 낮아 해당 정책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통합되었다.

셋째, 분석 대상은 1)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 집단 1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경우(예: 해당지역 주민, 해당 지자체 공무원, 주무부처 공무원 등), 2) 언론(신문), 3) 두 집단 이상의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넷째, 프레임 확인 방법은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따라, 1) 연역적 방법, 2) 귀납적 방법: 동일한 입장의 집단을 기준으로, 3) 귀납적 방법: 이슈별로 구분하는 방식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연역적 방법은 프레임 유형을 제시한 선행 이론을 기초로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반면 귀납적 방법은 이론이 아니라 사례를 분석하면서 연구자가 귀납적으로 프레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귀납적 방법은 다시 2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 경우는 예를 들어 찬성 프레임과 반대 프레임, 중도 프레임, 환경 프레임과 개발 프레임처럼 인식을 공유하는 집단별 특성을 기준으로 프레임의 명칭을 부여한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사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된 이슈별로 프레임의 명칭을 부여한 경우이다. 언론 매체나 여론에 대한 프레임 분석에서 흔히 이용되는 이슈 한정 프레임(issue specific frame)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분석 방법은 크게 내용분석 방법과 설문 결과분석 방법으로 구분되었다. 내용분석의 경우에는 다시 1) 양적 내용분석을 실시한 경우, 2)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한 경우, 3)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혼합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자료수집 방법은 1)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경우와 2) 신문, 보도자료, 문헌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일곱째, 시기별 분석 여부는 분석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써, 프레임 분석이 단지 특정 시점에서 확인된 프레임에 대한 정태적 분석인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프레임 변화를 분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의 역동적 변화, 즉 리프레이밍(reframing) 분석 여부는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리프레이밍이 갈등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IV. 문헌분석 결과

1. 문헌분석의 결과

전체적으로, 행정학자들에 의한 갈등 프레임 연구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갈등 프레임 연구의 대부분은 언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결과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대한 프레임 분석이 갈등 프레임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공공갈등³⁾ 연구에 특정한 정교한 방법론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분석대상 논문들을 각 변수마다 범주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표 5> 대상논문의 분류

기본특징		빈도	퍼센트	기본특징		빈도	퍼센트	
연구분야	갈등분야	6	19.4	대상사례	넘비갈등	10	32.3	
	인지심리학 분야	1	3.2		국가개발사업	7	22.6	
	사회운동 분야	4	12.9		법률안통과	9	29.0	
	언론 매체 분야	18	58.1		기타	5	16.1	
	기타	2	6.5		합계	31	100.0	
	합계	31	100.0		프레임 확인방법	연역적	13	41.9
분석대상	직접 당사자 집단 1개	5	16.1	귀납적: 동일한 입장의 집단 기준		4	12.9	
	신문사	19	61.3	귀납적: 토대이론 방식		14	45.2	
	다양한 관계자들	7	22.6	합계		31	100.0	
	합계	31	100.0	자료수집	인터뷰, 설문 등 직접 수 집한 자료	8	25.8	
분석 방법론	양적 내용 분석	14	45.2		2차 자료	23	74.2	
	질적 내용 분석	9	29.0		합계	31	100.0	
	혼합 내용 분석	5	16.1		리프레이밍 검토유무	분석함	4	12.9
	설문 / 통계	3	9.7			분석안함	27	87.1
	합계	31	100.0	합계		31	100.0	
시기별 분석유무	분석함	9	29.0					
	분석 안함	22	71.0					
	합계	31	100.0					

분석 결과, 정책 갈등을 대상으로 한 프레임 연구의 빈도가 가장 높은 학문 분야는 언론매

- 3) 갈등 프레임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공공갈등’ 또는 ‘정책갈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 임동진(2011)은 공공갈등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충돌’ 또는 ‘서로 다른 공익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공부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공공갈등으로 총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1185호)”에 따르면, 해당 갈등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갈등인지 또는 서로 다른 공익 사이의 갈등인지를 불문하고,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의 수립 및 추진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제 2조)’을 공공갈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공공갈등을 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에 의해 발생된 공공부문의 갈등, 즉 정책갈등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갈등과 정책갈등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었다.

체(뉴스) 분야(18개, 58.1%)였고, 다음으로 갈등연구 분야(6개, 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⁴⁾. 언론매체 분야의 연구 빈도가 높은 특성은 분석대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⁵⁾. 언론매체 분야의 연구는 대부분 신문사(매체)별로 정책 갈등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신문사별 기사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경우가 7개(22.6%)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갈등 당사자 집단 하나를 선정하고,⁶⁾ 이들을 분석한 경우는 5개(16.1%)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자료수집 방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특히 1개 당사자를 선정해서 연구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설문 등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가 대부분인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빈도별로는 2차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23개로 전체 연구의 74.2%를 차지하고 있어⁷⁾, 갈등 당사자의 인식 프레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분석대상 사례에는 님비(NIMBY)시설 입지 과정에서의 자치단체(또는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⁸⁾이 10개(3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정한 법률안이나 정책 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서의 이익 집단간 갈등⁹⁾ 9개(29.0%),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¹⁰⁾ 7개(22.6%)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임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프레임 분류를 분석틀로 하는 연역적 접근의 연구가 13개(41.9%)인 반면, 사례분석을 통해 중요한 이슈별로 묶어 프레임의 이름을 결정하는 귀납적 접근은 18개(58.1%)로 더 많았다. 특히 귀납적 연구 중에서 4개(12.9%)는 단지 찬성 또는 반대 집단을 찬성 프레임을 가진 집단 또는 반대 프레임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환경 프레임을 가진 집단 또는 개발 프레임을 가진 집단처럼 이분법적으로 프레임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상황을 해석하는 인식의 틀로서의 프레임 개념을 적절히 활용한 프레

4) 대표적으로 언론매체분야의 연구에는 임양준(2009), 박병주·박관영·이인희(2007), 이현우·이병관(2005), 나미수(2004), 이준웅(2004), 박경숙(2002) 등의 연구가 있었고, 갈등연구분야에는 심준섭·김지수(2010), 김창수(2010), 서준경(2008), 나태준(2006)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그 외의 대상 논문은 참고문헌에 모두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5) 신문기사를 분석한 연구는 강민아·장지호(2007), 이민규·김수정(2006), 최낙진(2004), 강내원(2002) 등이 포함된다.

6) 예: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중앙의 주무부처 공무원

7) 1차 자료를 사용한 논문은 서준경(2008), 최인이(2007), 주경일·최홍석·주재복(2003), 주경일(2002) 등 소수에 불과한 반면, 윤순진·이동하(2010), 임순미(2010), 김원용·이동훈(2005), 한군태·송기인(2005)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2차 자료가 사용되었다.

8) 예: 댐건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심준섭·김지수, 2010; 정정화, 2007; 이현우·이병관, 2005)

9) 예: NEIS 시스템 도입, 호주제폐지, oo법률안 등(조경숙·한군태, 2010; 김경희·김민희, 2010; 서준경, 2008; 이현우·이준호, 2004; 박경숙, 2002; 양정혜, 2001)

10) 예: 새만금, 4대강 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등(원만해·채백, 2007; 한군태·송기인, 2005)

임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주요 이슈별로 프레임 명칭을 부여한 경우는 14개(45.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역적인 방법으로 분석틀을 구성한 경우에도, 사회운동 분야의 프레임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프레임의 형성과정을 단계별로 정의하는 분석틀이 이용되었다(4명, 12.9%).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면, 양적·질적 내용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설문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3개(9.7%)에 불과하였다¹¹⁾. 초기의 언론매체 분야 프레임 연구에서는 뉴스 보도나 신문 기사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이 주로 이용되었다. 특히 주요 키워드의 빈도를 계산하여 사용된 프레임들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경우, 주로 담론분석 위주의 질적 내용분석과 언론매체 분야의 프레임 연구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한 연구가 병행되었다. 최근에는 양적 내용분석이 지닌 약점인 심층적인 갈등관계 분석의 어려움과 질적 내용분석이 지닌 약점인 연구자 주관의 개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 양적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가 시도되고 있다(심준섭·김지수, 2010).

마지막으로, 대부분(22개, 71%)의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프레임을 분석한 정태적 접근을 하였으며, 시기별로 동태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에도 프레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결과 리프레이밍이 갈등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한 경우는 소수에(12.9%) 불과하였다¹²⁾.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언론매체 분야에서부터 시작된 갈등연구에 대한 프레임 접근법은 현재 여러 학문분야로 확장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상의 문헌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지금까지의 갈등 프레임 연구들이 지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프레임 정의방법의 문제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는 귀납적 연구가 58.1%로 연역적 연구보다 약 6% 많았지만, 그 중 일부(12.9%)는 단지 갈등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프레임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프레임과 유사개념들(예: 인식, 입장 등) 간의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 프레임 분류는 당사자들의 인식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프레임 접근법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반대로, 연역적으로 프레임 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특히 사회운동분야 프레임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경우,

11) 이중웅(2004), 주경일(2002), 나태준(2009) 등이 포함된다.

12) 리프레이밍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는 심준섭·김지수(2010), 원만해·채백(2007), 정정화(2007), 주경일(200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갈등의 시기별 전개과정을 사회운동 분야의 프레임 유형을 가지고 설명함으로써, 갈등의 시기별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전통적인 갈등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프레임 정의 방법의 문제는 프레임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간의 우월성 논쟁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두 번째는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문제이다. 문헌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약 10%의 설문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질적·양적 내용분석에 의존한 프레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첫째, 갈등당사자들은 대부분 집단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문조사의 경우 집단 구성원 다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 프레임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통한 프레임 연구가 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타당도를 지닌 프레임 측정 지표들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갈등 당사자들의 언어적 묘사나 표현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약 74%의 연구가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신문 방송 등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언론매체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갈등 당사자의 내면적 인식체계를 분석하는 프레임 연구의 특성상 2차 자료만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인 점은 커다란 한계이다.

세 번째는 프레임 접근법들간의 이질성 문제이다. 대체로 프레임 접근법은 사회운동, 인지심리학, 언론매체 연구, 갈등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프레임 접근법들은 프레임 분석의 대상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질성은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프레임 접근법들 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동일한 공공갈등에 대해서도 어떤 프레임 접근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갈등을 유형화하고 특정 유형의 갈등에 특정한 프레임 방법론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V.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확대를 위한 고민과 대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이제 막 초기 단계를 벗어난 수준이다. 그 결과 연구 성과의 축적이 미흡하며,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하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된 세 가지 문제점들과 본 연구진들이 실제 프레임 접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고민거리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프레임과 연관 개념들 간에 개념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개별사례에 특화된 프레임 모형과

일반 프레임 모형간의 선택의 어려움이다. 셋째, 갈등 프레임 분석을 위한 적절한 분석방법론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넷째, 공공갈등 연구에 적합한 갈등 프레임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다양한 분야의 프레임 접근법을 어떻게 공공갈등 연구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 프레임과 유사 개념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첫 번째 이슈는 프레임과 유사한 개념들 간의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이다. 특히, 입장, 인식(perception), 프라임(priming) 등과의 보다 분명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프레임은 입장(position)과 구분되어야 한다. 국내 프레임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분법적 프레임 분류를 기반으로 정책갈등 상황에서 ‘찬성 프레임’ 대 ‘반대 프레임,’ ‘환경 프레임’ 대 ‘개발 프레임’처럼 각 당사자의 입장에 그대로 프레임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입장에 근거한 프레임 명칭은 직관적으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구분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안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프레임 차이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 더욱이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프레임 이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고, 단지 집단의 입장을 프레임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상당부분 프레임 개념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프레임과 유사 개념들간의 분명한 구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Gamson & Modigliani(1989)는 프레임을 일정한 정책 조치(policy measure)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프레임이 정책에 대한 특정한 정향(예컨대 친원자력)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프레임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어떤 반응로를 건설할 것인가’의 이슈가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이견들이 프레임의 불일치는 아니다. 예컨대 친원자력 지지자들이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일정한 공유된 프레임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이슈들에 대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목적은 갈등의 역동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Kaufman et al., 2003). 당사자들이 왜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지, 왜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지, 어떤 점이 환경보호를 위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인식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프레임 분석의 의도이다.

다음으로, 인식(perception)과 프레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식은 감각적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함으로써 환경을 이해하고 의식하는 과정이다. 반면 프레임은 이러한 인식과 사고의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프레임은 관련되는 인식과 이해들이 모여 하나의 인식구조 또는 틀

을 형성한 것으로서 단순한 인식 이상의 복합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Kaufman et al.(2003)은 프레임은 신념, 가치, 그리고 경험의 내재적 구조위에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프레임 분석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레임 분석 과정은 단순히 갈등 당사자의 인식을 조사 및 기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한다.

프레이밍 개념과 혼란을 유발하는 또 다른 개념은 프라이밍(priming)이다. Iyengar & Kinder(1987)가 처음으로 대중매체 연구에서 프라이밍 개념을 도입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무시하면서 일부 문제들에 주목함으로써, 텔레비전 뉴스들은 정부, 대통령, 정책, 선거후보자들이 (대중들에 의해) 판단되는 기준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프라이밍은 사람들이 정치적 평가를 위해 이용하는 기준들의 변화를 의미한다(Iyengar & Kinder, 1987). 예컨대, 국방정책에 관한 뉴스들에 노출된 개인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성과평가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즉, 국방정책이 미흡하면 대통령의 전반적인 평가가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 정책에 관한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정책성과에 기초해서 대통령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이슈가 사람들의 보다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프라이밍이다. Chong & Druckman(2007)은 대중매체의 프레이밍과 프라이밍 효과는 공통된 부분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두 표현은 교환적으로 사용가능하고 보았다.

2. 개별 사례에 특화된 프레임이 적절한가? 아니면 일반 프레임이 적절한가?

또 다른 고민은 개별 사례에 특화되어 개발된 프레임 모델들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언론매체 분야의 프레임 연구에서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사례의 주요 프레임들을 확인하고 명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특정 이슈나 사건에만 한정된 프레임들이 사례마다 다르게 확인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de Vreese(2005)의 연구를 따라 갈등 프레임을 이슈한정 프레임(issue specific frame)과 일반 프레임(generic frame)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³⁾ 이슈한정 프레임들은 특정한 이슈나 사건에 한정된 프레임들이며, 따라서 맥락적이며 상황의존적인 프레임들이다. 예컨대 Gamson & Modigliani(1989)의 연구에서는 원자력 이슈를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사회의 헌신’으로 프레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이슈한정 프레임 접근법은 특정 이슈나 사건과 관련된 상당한 구체성과 심층성을 장점

13) de Vreese et al.(2001)은 갈등 프레임을 일반 프레임의 하나로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갈등 프레임은 뉴스 미디어가 사건이나 이슈의 갈등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갈등 프레임과는 구분된다.

으로 한다. 각 갈등 사례마다 특징적인 이슈한정 프레임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정책갈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갈등의 경우 이슈한정 프레임의 적용은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높은 이슈 민감성은 이론 형성을 위한 경험적 증거로서 프레임을 비교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비교의 어려움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너무 쉽게 찾도록 만든다(de Vreese, 2005). 더욱이 각 갈등 사례 연구마다 서로 다른 프레임들이 확인되고 결과물로서 제시되기 쉽다. 적어도 사례 수만큼의 프레임 수가 확인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개발된 프레임 유형이 선행연구의 프레임 이론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연구자들이 각자 자신만의 갈등 프레임을 찾아내고 독창적 연구 성과를 주장하겠지만 제1종 오류의 증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일반 프레임은 이슈와 맥락을 달리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들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일반 프레임은 특정한 상황과 이슈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장점으로 한다. 예컨대 개발 프레임과 보존 프레임은 일반 프레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 프레임들은 갈등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인식 패턴을 반영하며, 따라서 상이한 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동일한 프레임의 발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일반 프레임의 분류는 프레임 분석의 의미와 실질적 유용성을 저해하기 쉽다. 이 경우 프레임 보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갈등 프레임들은 중범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특히 유사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프레임들을 토대로 먼저 프레임을 분류한 후, 연역적으로 갈등 사례에 접근하는 논문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Gray & Donnellon(1989), Pinkley(1990), Lewicki et al.(2003), Drake & Donohue(1996), Rogan & Hammer(2002), 심준섭(2011)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갈등 프레임들은 이슈한정 프레임 연구에서와 같은 분석의 심층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프레임이 지닌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갈등의 특성상 각 사례별로 독특한 양상으로 갈등이 전개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정부-정부, 주민-정부의 갈등 등 유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측면도 있다. 더욱이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갈등을 묘사하고 기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갈등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임 접근법이 효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성과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 갈등 연구에서의 프레임 접근법은 단순히 다양한 이슈한정 프레임들을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 연구에 특화된 프레임 분류와 이론화 작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3. 갈등 프레임 분석을 위한 적절한 프레임 분석 방법론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슈는 갈등 프레임 분석을 위한 적절한 프레임 분석 방법론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상의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프레임 분석은 내용분석을 통해 언어적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이며 설문에 대한 양적 분석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프레임의 조작화나 측정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레임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토대가 공유되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각자의 특정한 연구목적에 대해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잠정적 수준에서 조작화하고 있다. 그 결과 프레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 일치된 시각을 찾아보기 어렵다. 프레임 자체가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보니 프레임의 측정 문제는 더더욱 고민스러운 이슈이다.

이하에서는 사회과학의 양대 연구 방법론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프레임의 확인과 측정 문제를 비교함으로써 갈등 프레임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6>은 양적 프레임 분석과 질적 프레임 분석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표 6> 양적 프레임 분석과 질적 프레임 분석의 비교

구분	양적 프레임 분석	질적 프레임 분석
접근법	연역적: 선행연구에 기초	귀납적, 연역적 보완: 연구 질문이 자료수집과 분석을 인도
주요 분야	언론매체 연구, 인지심리학	사회운동 연구, 갈등 연구
철학적 토대	실증주의	자연주의(naturalist) 또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t)
목적	텍스트로부터의 재생가능하고 타당한 프레임을 이끌어 내는 것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한 프레임의 포착
전제	- 프레임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 관찰 가능한 실제로 인정	- 프레임은 데이터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음 - 프레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짐: 화자와 연설의 장(forum)을 고려
자료 수집	- 체계적이며 무작위인 표본추출: 일반화 가능	- 의도적 표본추출 연구 질문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답을 찾고자 함
코딩 스킴	연구에 앞서 코딩 스킴이 개발됨: 연역적 - 프레임을 나타내는 단어, 구절, 문장의 목록(dictionary) 개발 - 특정 단어, 구절, 문장이 프레임의 지표로 이용	연구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프레임들이 드러남: 귀납적 - 프레임별 범례(prototypes)를 작성 - 연구자의 해석적 확인 - 프레임 확인과정은 반복적이고 창발적
코딩	객관적: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정 - 내용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코딩 가능	주관적: 신뢰성(trustworthiness)의 확보 - 코더간 신뢰도 검정 필요

<계속>

구분	양적 프레임 분석	질적 프레임 분석
논리 구조	- 빈도, 프레임의 존재, 상대적 중요도 - 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	- 특정한 프레임에 대한 기술 - 수치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빈도나 퍼센트의 제시 - 맥락의 고려: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의 상세하고 철저한 기술
분석 방법	- 통계적 방법: 군집분석	담론분석: 프레임의 특징을 묘사 - 특징행렬(signature matrix)의 이용 - 코더에 의존
강점	연구의 재생가능성	연구의 유연성, 심층성
약점	프레임의 맥락에 대한 이해 미흡 프레임의 창발적 측면 고려 미흡	연구자의 주관의 개입

질적인 프레임 연구는 대부분 프레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각주에 “보고된 주장들이 실제 언어로부터 분석되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Statham & Mynott, 2002).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용을 읽어보니, 다섯 가지 주제들의 차원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프레임에 대한 코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프레임의 확인을 위해 귀납적 접근을 취하며(대표적으로 Gamson, 1992; Neuman et al., 1992),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이나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으로부터 차용한 해석적 기법들을 주로 이용한다. 귀납적인 연구는 사전에 정의된 갈등 프레임들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부정한다. 연구자는 미리 이론적인 틀을 짜지 않고 사례에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둔다. 프레임들은 귀납적 분석과정에서 텍스트로부터 저절로 드러난다(merge). 능숙한 연구자는 다양한 함축적 상징들과(즉, 캐치프레이즈, 표어, 예시, 은유, 묘사, 시각적 이미지) 추론적 장치들(reasoning device; 즉, 원인과 결과, 원칙에의 호소나 도덕적 주장)을 통해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다(Gamson, 1993). 연구자는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 요소들이 어떻게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가에 주목함으로써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간의 연계를 파악하고, 이들을 묶는 상이한 통합적인 구조 또는 프레임을 식별한다(Creed et al., 2002). Entman(1993)은 뉴스 보도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사실 또는 판단을 강화하는 특정한 키워드들, 문구들, 전형적인 이미지들, 정보의 원천과 문장들의 존재를 통해 프레임이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프레임 확인에 해석적 기법이 이용되지만, 분명한 점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마다 새로운 프레임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되며, 적어도 기존에 확립된 해석의 준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귀납적 접근의 연구들은 지나치게 작은 표본에 의존하며,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분석결과를 재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Hertog & McLeod, 2001). 흔히 공공 갈등에서 갈등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몇 사람만의 의견이나 주장이 질적 분석 대상 자료가 된다. 이 경우 적은 수의 표본에 따른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커다란 약점으로 제기된다(심준섭, 2011).

프레임에 대한 양적 접근은 질적 접근과 비교할 때 매우 취약한 수준이지만, 프레임의 조작화와 측정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다. 양적 접근법은 연역적 연구가 중심이며, 따라서 연구에 앞서 프레임이 정의되고 조작화된다.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 Cappella & Jamieson(1997)에 따르면, 언어적 또는 시각적 텍스트의 모든 측면을 뉴스 프레임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대부분의 양적 프레임 연구에서는 엄격하게 확인가능한 프레임 단어들, 용어들, 속성들, 또는 장치들(devices)의 목록이 제시된다. 이들은 프레임의 확인을 위한 분명한 지표로 이용된다.

특히 키워드가 프레임의 지표로 많이 이용된다(Entman, 1993). 그러나 프레임은 인식의 복합적인 체계이며 잠재변수(latent variable)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단어들을 통해 완전하게 대표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의 상당 부분은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첫 번째 작업은 이러한 키워드들을 찾는 것이다. 특정한 단어나 용어들을 특정 프레임의 핵심 요소로 보고 그 프레임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정체성 프레임을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 또는 ‘자신들’과 같은 지시어의 사용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다. 즉, 해석적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 조작(researcher fiat)(Tankard et al., 1991: 5; Tankard, 2001: 98)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단어와 표현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적 프레임 분석의 경우 단순히 키워드의 빈도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빈도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키워드들을 이용해 프레임을 확인한 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프레임을 타당화(validate)한다. 그러나 리프레이밍 여부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연구에서는 여전히 양적 분석만으로는 미흡하다.

최근 들어 프레임 연구에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방법을 혼합하여 단일 방법론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양적 프레임 분석의 결과를 질적 담론분석으로 뒷받침하거나(심준섭, 2011, 심준섭·김지수, 2010), 질적 담론분석 결과를 양적 프레임 분석 결과로 뒷받침하는 방법론적 다각화(methodological triangulation)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갈등 프레임 분석에서 방법론적 다각화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두 분석방

법론의 결합 방법에 대한 초기 단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정교한 혼합방법론의 개발을 통해 공공 갈등에 대한 프레임 접근법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갈등 연구에 적합한 갈등 프레임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형화된 갈등 프레임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갈등 당사자들의 인식체계에 대한 프레임 접근법의 장점을 살리고, 갈등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공 갈등에 특화된 갈등 프레임을 어느 정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갈등의 대표적인 유형마다 갈등을 촉발하고, 장기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프레임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 갈등의 경우 위험 프레임은 갈등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심준섭, 2011).

그러나 <표 7>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이 갈등을 정의하기 위해 이용하는 프레임의 유형과 개수에 대해 연구자마다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갈등 프레임 유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석의 초점과 연구의 함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축적될수록 갈등 프레임 유형이 정교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80 후반 갈등 프레임 연구 초기에는 단순한 프레임 분류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보다 정교한 분류가 나타났다. 이는 갈등 당사자의 인식체계가 단순히 찬성/반대, 긍정/부정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7>을 살펴보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갈등 프레임의 유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최근의 Brummans et al.(2008), Lewicki et al.(2003), Kaufman et al.(2003), 심준섭·김지수(2010) 등의 연구를 기초로 갈등 프레임을 유연화하면,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의 혼란을 상당부분 방지하면서도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갈등 프레임은 모든 갈등에서 확인될 수 있는 3가지 일반 프레임과 나머지 갈등 이슈에 따라 두드러지는 프레임들로 유형화할 수 있다(Brummans et al., 2008; Lewicki et al., 2003; Kaufman et al., 2003). 대체적으로 정체성 프레임, 특징부여 프레임, 갈등관리 프레임은 일반 프레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Lewicki et al., 2003). 이들 3개 프레임들은 모든 갈등 이슈들에서 나타나며 갈등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들이다. 반면, 권력 프레임, 위험 프레임, 손익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은 갈등의 이슈에 따라 갈등의 역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면, 개별 사건마다 이슈 한정 프레임이 확인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갈등 프레임 유형화에 기반한 장기

간의 연구성과의 축적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갈등 연구의 처방적 특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갈등 프레임의 유형

구분	갈등 프레임 유형
Neal & Bazerman(1985)	긍정적(이익 극대화), 부정적(손실 회피)
Gray & Donnellon(1989) 주경일(2002) 주경일·최홍석·주재복(2003)	실질적(substantive) 프레임, 손익(lose-gain) 프레임, 특징부여(characterization) 프레임, 결과(outcome) 프레임, 기대(aspiration) 프레임, 과정(process) 프레임, 증거(evidentiary) 프레임
Donnellon & Gray(1990)	실질적 프레임, 손익 프레임, 특징부여 프레임, 과정(process) 프레임, 결과 프레임, 기대 프레임
Gray(1991)	실질적 프레임, 결과 프레임, 특징부여 프레임
Pinkley(1990)	관계-과업(relationship-task), 감정-지성(emotional-intellectual), 타협-승리(compromise-win)
Drake & Donohue(1996) Donohue et al.(1994, 1988)	사실(fact), 이해(interest), 가치(value), 관계(relation)
Schön & Rein(1994)	사회복지 프레임, 시장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
Rogan & Hammer(2002)	도구적(instrumental), 관계적(relational), 체면(face)
Lewicki et al.(2003) 심준섭·김지수(2010)	정체성 프레임, 특징부여 프레임, 갈등관리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 상황요약 프레임, 권력 프레임, 위협 프레임, 손익 프레임
Kaufman et al.(2003)	정체성 프레임, 특징부여 프레임, 갈등관리 프레임, 권력 프레임, 위협 프레임, 손익 프레임
Brummanns et al.(2008)	정체성 프레임, 특징부여 프레임, 갈등관리 프레임, 사회적 통제 프레임, 권력 프레임
김창수(2008, 2007)	개발/보존
나태준(2009)	찬성/반대

5. 다양한 분야의 프레임 접근법을 어떻게 공공갈등 연구에 활용할 것인가?

프레임 분석은 개인은 각자의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또한 연구자는 이러한 프레임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론적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전제 위에서 사회운동연구, 인지심리학적 연구, 언론매체 연구, 갈등 연구는 프레임 분석을 위해 각기 다른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그 결과 프레임을 연구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프레임을 분석하고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프레임 연구 관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프레임의 개념과 분석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의 프레임 접근법들을 어떻게 공공갈등 연구에 활

용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연구 목적과 대상 갈등에 따라 프레임 분석의 방법론은 달라진다. 공공갈등 당사자의 프레임 자체를 묘사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인지심리학적 관점을, 갈등 당사자들이 집단화되고 동원되는 과정을 분석할 때는 사회운동 연구 관점을, 상호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당사자의 프레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언론매체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지심리학적 접근은 그 자체로 프레임 연구의 분명한 방법론을 제공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프레임 연구를 인도하는 메타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 수준에서 공공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 프레임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기술에 프레임 분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특히 당사자가 어떻게 갈등 상황을 해석하고, 상대방을 규정하며, 갈등 관리 방안들을 정당화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접근법은 당사자가 갈등 상황을 이해하는 인식체계의 핵심이 프레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프레임 접근법들의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운동 이론과 방법들을 공공갈등 연구의 맥락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갈등 프레임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분석의 단위는 집단 또는 조직이 되며, 갈등 당사자 집단이 어떻게 갈등 상황을 해석하고, 조직화하고, 전략적으로 프레임링 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의 접근의 기본 전제인 “현상에 대한 당사자의 의미부여”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석의 초점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전환하여 갈등 이슈들에 대한 집단적으로 공유된 프레임의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프레임링 효과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당사자 집단의 갈등관리 전략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프레임링 효과는 개인의 인지구조의 형성이나 변화로 나타나며,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해석, 의미형성 등이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사회운동 참여의지로 전환된다. 집단 수준에서의 프레임링 효과는 조직 또는 집단의 시각이나 관점을 결정짓는 전체적인 해석의 틀이 형성되거나 변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레임링 효과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공공갈등 하에서 개인들이 조직화되고, 집단적 의견 표출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연구 관점은 갈등 당사자 집단이나 조직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링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Snow et al., 1986). 넘비 시설이나 환경 분쟁과 같은 공공갈등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흔히 시민단체는 개인들의 불만을 집단적으로 동원하고, 개인들의 이념적 가치나 규범이 공유되도록 유도하며, 갈등 이슈가 언론에 주목되고 나아가 정책 의제가 되도록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프레임링은 참여자들 간에 공동의 목표, 임무, 비전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된다. 특히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표현과 같은 프레임 증폭(frame amplification), 프레

임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프레임 확장(frame extension), 상징적 구호나 행위를 통한 프레임 전환(frame transformation) 전략들이 빈번하게 활용된다. 또한 시민 단체들은 의도적인 진단적 프레이밍(prognostic framing)을 통해 문제의 책임을 특정 대상(흔히, 정부)에 전가하며, 동기적 프레이밍(motivational framing)을 통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집단적 행동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정당한 행위로 인식되도록 만든다(Snow & Benford, 1988; 강민아·장지호, 2007). 이처럼 시민단체는 보다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이들과 프레임을 공유함으로써 강력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운동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시민 단체 간 프레임 경쟁(frame competition)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경쟁적 프레임들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매체연구 접근법을 공공갈등 연구에 도입함으로써 프레임 분석에 필요한 방법론적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매체 분야의 프레임 연구에서는 양적 접근을 통해 프레임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Entman (1993)은 뉴스에서 주제별로 사실이나 판단을 강화하는 특정한 키워드, 문장, 정형화된 이미지의 존재 여부를 통해 프레임들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론매체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갈등 당사자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코딩 기준표(coding scheme)를 제작하고 프레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레이밍 장치(framing devices)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갈등 당사자들로부터 얻어진, 또는 당사자들과 관련된 텍스트(예컨대, 인터뷰, 설문, 출판물 등의 자료)에 대한 코딩 기준표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키워드, 문장 분석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프레임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연구 접근법을 통해 언론매체의 뉴스, 보도, 기사 등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정책갈등에 대해 언론매체들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프레이밍하며, 이들의 상이한 프레이밍이 대중들의 정책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이와 함께, 언론매체 접근법은 당사자들의 프레임 변화 또는 리프레이밍을 분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내 갈등 프레임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 집단별 프레임 차이를 횡단면적으로 비교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프레임이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한 경우는 드물다. 리프레이밍은 프레임 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언론매체 접근법을 통해 뉴스 프레이밍이 어떻게 당사자의 근본적인 관점 변화(perspective change)를 유도하는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고민거리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고민거리들은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현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갈등 프레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특히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의 공공갈등 연구에 적합한 정교한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연구자마다 개별적이며 분절적인 프레임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프레임 접근법이 공공갈등 분야에 어떤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프레임 접근법의 공공갈등 연구 분야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시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내 갈등 연구에서의 프레임 접근법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갈등에 프레임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고, 특히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는 보다 최근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프레임 연구가 초기 단계이며, 분석대상 논문의 수 역시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갈등 프레임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면에는 공공갈등 연구를 위한 독자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은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할 많은 이슈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취약함이 공공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접근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지심리학적 연구, 사회운동연구, 언론매체연구, 갈등연구 등 여러 분야의 프레임 연구들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갈등 분야의 프레임 연구를 위한 거인의 어깨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내원(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이밍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3): 5-46.
- 강민아·장지호(2007).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한국행정학보」, 41(2): 23-45.
- 김경희·김민희(2010). 입법과정에 나타난 일·가족 양립 문제의 프레임(frame)에 관한 연구: 2000-2006년 국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담론201」, 13(4): 71-101.
- 김원용·이동훈(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4): 168-213.
- 김창수(2010).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33-162.
- 나미수(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 KBS, MBC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6: 1-33.
- 나태준(2006). 정책인식 프레이밍 접근방식에 따른 갈등의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297-326.
- _____(2009). 이슈 프레이밍 분석을 통한 환경정책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2): 57-77.
- 박경숙(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 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2): 310-342.
- 서준경(2008). 정책딜레마의 사회적 구성: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119-149.
- 심준섭(2011).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 「한국행정연구」, 20(2): 149-178.
- 심준섭·김지수(2010).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사례. 「행정논총」, 48(4): 229-261.
- _____(2011). 원자력 발전소 입지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프레임 및 프레임 변화. 한국정책 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양정혜(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2): 284-315.
- 원만해·채백(2007).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보도에서 나타나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뉴스 프레이

- 미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 199-229.
- 윤순진·이동하(2010). 4대강 사업에 대한 TV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환경사회학연구ECO」, 14(1): 7-62.
- 이민규·김수정(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4: 132-162.
- 이병주·박관영·이인희(2007).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개념을 통한 프레임 분석: “사학법 개정” 관련 갈등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9: 385-428.
- 이준웅(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이밍 모형 검증 연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형성과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1): 133-163.
- _____ (2004).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의 이중성: 원칙과 정책에 대한 의견의 괴리. 「한국언론정보학회」, 26: 1-20.
- 이현우·이병관(2005).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5(3): 516-547.
- 이현우·이준호(2004). 이익집단 보도자료 프레이밍의 대상과 기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NEIS 반대활동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6(1): 144-181.
- 임동진(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 임순미(2010).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대한 언론 프레이밍 연구. 「정치정보연구」, 13(2): 161-189.
- 임양준(2009). 집단적 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53(5): 55-79.
- _____ (2010).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방송뉴스 보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52: 5-26.
- 정정화(2007). 환경갈등과 언론-부안 방폐장에 대한 이해집단과 미디어 프레임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3): 177-209.
- 조경숙·한군태(2010). 한국 신문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미디어관련법 개정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3): 133-165.
- 주경일(2002).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갈등문제에 대한 인지적 접근-집단프레임(collective frame)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8(2): 336-371.
- _____ (2002). 스테기 조각장 입지과정에서의 집단행동의 틀과 틀짓기 행위 분석.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1-23.
- 주경일·최홍석·주재복(2003).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

- 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1(4): 193-221.
- 최낙진(2004). 지역신문 뉴스 프레임 비교: 핵폐기장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7: 283- 318.
- 최인이(2007). 노동조합운동전략으로서의 프레임링과 정체성 구성. 「동향과전망」, 70: 273-313.
- 한균태·송기인(2005). 국내 신문의 환경 이슈 보도에 대한 프레임링 연구. 「한국방송학보」, 19(3): 288-324.
- Barker, D. C.(2005). Values, Frames,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Nomination Campaigns. *Political Behavior*. 27(4): 375-394.
- Bartlett, F. C.(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zerman, M. H.(1983). A Critical look at the rationality of negotiator judge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211-228.
- Brummans, B., Putnam, L., Gray, B., Hanke, R., Lewicki, R., & Wiethoff, C.(2008). Making Sense of Intractable Multiparty Conflict: A Study of Framing in Four Environmental Disputes. *Communication Monographs*. 75(1): 25-51.
- Cappella, J. N., & Jamieson, K. H.(1997). *The spiral of cynicism: The press and the public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ong, D. & Druckman, J. A.(2007). Framing Public Opinion in Competitive Dem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 637-655.
- Creed, D., Langstraat, J., & Scully, M.(2002). A Picture of the Frame: Frame Analysis as Technique and as Politic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January*. 5(1): 34-55.
- Dewulf, A., Gray, B., Lewicki, R., Putnam, L., Aarts, N., Bouwen, R., Van Woerkum, C.(2009). Disentangling approaches to framing: mapping the terrain. *Hum Relat*. 69(2): 155-193.
- Drake, L. E., & Donohue, W. A.(1996). Communicative framing theory in conflict resolution. *Communication Research*. 23(3): 297-322.
- Edelman, M.(1988).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tman, R. M., & Rojecki, A.(1993). Freezing out the Public: Elite and Media Framing of the U. S. Anti-nuclear Mone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0: 155-173.
- Fairhurst, G. T., & Sarr, R. A.(1996). *The Art of Framing: Managing the Language of Leadership*. San Francisco: Jossey-Bass.

- Gamson, W.(1988). Political Discourse and Collective Ac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219-246.
- Gamson, W. A.(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 Gamson, W.(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Collective Action: 53-76 in: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edited by A.D. Morris and C.M. Muell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amson, W. A., & Lasch, K. E.(1983). The political cul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 E. Spiro & E. Yuchtman-Yaar (Eds.),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 Gamson, W. A., & Mogdiliansi, A.(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itlin, T.(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ec, A., & Federico, C. M. (2004). Understanding political conflict and its resolution: Interactive effects of the need for closure and salient conflict schem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750-762.
- Gray, B.(2003). Freeze-framing: The timeless dialogue of intractability surrounding Voyageurs National Park. In R. Lewicki, B. Gray, & M. Elliott (Eds.). *Making sense of intractable environmental conflicts: Concepts and cases.*: 11-34. Washing ton, D.C.: Island Press.
- _____.(2004). Strong Opposition: Frame-based Resistance to Collabora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166-176.
- Gray, B., & Donnellon, A.(1989). *An interactive Theory of reframing in negotiation*.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Hammond, K.(1996). *Human judgment and social policy: Irreducible uncertainty, inevitable error, unavoidable in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rtog, J., & McLeod, D.(2001). A multiperspectival approach to framing analysis: A field guide. In S.Reese, O.Gandy, & A.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139-161. Mahwah, NJ: Erlbaum.
- Iyengar, R.(1990). Shortcuts to Political Knowledge: The Role of Selective Attention and Accessibility. In *Information and Democratic Processes*, ed. John Ferejohn and James Kuklinski. Champaign: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60-85.
- _____.(1996). Gating by Cyclic AMP: expanded role for an old signaling Pathway. *Science*. 271: 461-463.
- Iyengar, R., & Kinder, D.(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oby, W. G.(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4): 750-767.
- Kaufman, S., Elliott, M., & Shmueli, D.(2003). Frames, Framing and Reframing. In G. B urgess & H. Burgess (Eds.), *Conflict Research Consortium: University of Color ado*, Boulder. Posted: September 2003 <<http://www.beyondintractability.org/essay /framing/>>.
- Lewicki, R. J., Barry, B., Saunders, D. M., & Minton, J. W.(2003). *Negotiation* (4th ed.). New York: McGraw- Hill=Irwin.
- Nelson, T., Clawson, R. A., & Oxley, Z. M.(1997). Media framing of a civil liberties conflict and its effect on toleranc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3): 567-583.
- Nelson, T., & Oxley, Z.(1999). Issue Framing Effects on Belief Importance and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 1040-1067.
- Neuman, W. R., Just, M. R., & Crigler, A. N.(1992) *Common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nkley, R. L.(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 117-126.
- Pinkley, R. L., & Northcraft, G. B.(1994). Conflict frames of reference: Implications for dispute processes and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193-205.
- Putnam, L. L., & Holmer, M.(1992). Framing, reframing, and issue development. In L. L. Putnam & M. E. Roloff (Eds.),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pp. 128-155). Newbury Park, CA: Sage.
- Riffa, H.(1982). *The art and Science of negotiation*. Cambridge. MA: Belknap.
- Rogan, R. G.(2006). Conflict Framing Categories Revisited. *Communication Quarterly*, 54(2): 157-173.
- Rogan, R. G., & Hammer, M. R.(2002). Crisis/hostage negotiations: A communication based approach. In H. Giles (Ed.), *Law enforcement, communication, and community*: 229-254.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oloff, M. E., & Jordan, J. M.(1992). Achieving negotiation goals: The fruits and foibles of planning ahead. In L. L. Putnam & M. E. Roloff (Eds.),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21-45. Newbury Park, CA: Sage.
- Schön, D., & Rein, M.(1994). *Frame Reflection: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Controversies*. New York: Basic Books.
- Simon, H.(1957).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in *Models of Man, Social and Rational: Mathematical Essays on Rational Human Behavior in a Social Setting*. New York: Wiley.
- _____.(1976), *Administrative Behavior* (3rd ed.). New York: The Free Press
- Snow, D., & Benford, R.(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ed. A. D. Morris and C. M. Mueller: 1333-55,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atham, P., & Mynott, E.(2002). the Dilemma of Anti-Racist and Pro-Migrant Mobilisation in Britain: Visibility or Political Power?.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ECPR conference, Turin, Italy. March. 22-27(2002). <http://www.essex.ac.uk/ecpr/events/jointsessions/paperarchive/turin/ws23/mynottstatham.pdf>. October, 6. 2003.
- Tankard, J.(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Reese, O. Gandy, & A.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95-106. Mahwah, NJ: Erlbaum.
- Tankard, J., Hendrickson, L., Silberman, J., Bliss, K., & Ghanem, S.(1991). *Media frames: approaches to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Paper presented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y and Methodology Division, Boston.
- Tannen, D.(1993).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D.(2000). Advances in environmental justice: Research, theory, and methodolog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3(4): 504-580.
- Tversky, A., & Kahneman, D.(1980).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1131.
- _____.(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 _____.(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2.
- Vreese, C. H.(2005). "The Spiral of Cynicism Reconsidered."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3): 283- 301.
- Vreese, C. H. de, Peter, J., & Semetko, H. A.(2001). Framing politics at the launch of the euro: A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frames in the news. *Political Communication*, 18(2): 107-122.

Wehr, P.(1979). *Conflict regulation*. Boulder, CO.: Westview.

Wilson, S., & Putnam, L. L.(1990). Interaction goals in negotiation. In J. Anderson (Ed.), *Communication Yearbook*. 13: 374-406. Newbury Park, CA: Sage.

K C I

<부록> 주요 분류기준에 따른 분석대상 논문의 구분

저자	연도	분석대상	학문분야	연구방법	자료수집	분석틀
강내원	2002	신문사	언론매체	혼합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강민아·장지호	2007	신문사	사회운동	질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김경희·김민희	2010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기타	질적내용분석	1차자료	귀납적: 입장기준
김원용·이동훈	2005	신문사	언론매체	혼합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김창수	2010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갈등분야	질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입장기준
나미수	2004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나태준	2006	직접당사자집단 1개	사회운동	질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나태준	2009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회운동	설문/통계	1차자료	연역적
박경숙	2002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서준경	2008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회운동	질적내용분석	1차자료	귀납적: 입장기준
심준섭·김지수	2010	직접당사자집단 1개	갈등분야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양정혜	2001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원만해·채백	2007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윤숙진·이동하	2010	신문사	언론매체	혼합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이민규·김수정	2006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이병주·박관영·이인희	2007	신문사	인지심리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이준용	2005	신문사	언론매체	혼합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이준용	2004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언론매체	설문/통계	1차자료	연역적
이현우·이병관	2005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이현우·이준호	2004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임순미	2010	신문사	언론매체	혼합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임양준	2010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임양준	2009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정정화	2007	직접당사자집단 1개	갈등분야	질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입장기준
조경숙·한균태	2010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주경일	2002	직접당사자집단 1개	갈등분야	질적내용분석	1차자료	연역적
주경일	2002	직접당사자집단 1개	갈등분야	설문/통계	1차자료	연역적
주경일·최홍석·주재복	2003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갈등분야	질적내용분석	1차자료	연역적
최낙진	2004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최인이	2007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기타	질적내용분석	1차자료	귀납적: 토대이론
한균태·송기인	2005	신문사	언론매체	양적내용분석	2차자료	연역적



심준섭(沈俊燮): 미국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Exploration of Alternative Designs for Judgment Analysis Application in Public Policy Formulation, 2002)를 취득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의사결정론, 갈등관리와 협상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프레임의 분석”(2011),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임링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사례”(2010), “계량적 판단모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2010) 등이 있다(jsshim@cau.ac.kr).

김지수(金智璿):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의사결정론, 갈등관리와 협상론, 언어네트워크분석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임링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사례”(2010)가 있다(jisukim82@gmail.com).

<논문접수일:2011년8월17일/논문수정일:2011년9월19일/게재확정일:2011년9월29일>